

베트남전쟁기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과 시사점

이신재*

Keywords

한국 농업기술단(Korean Agricultural Technology Group: KATG), 베트남전쟁(Vietnam War), 농업기술(Agriculture Technology), 남베트남(South Vietnam), 수리반(Irrigation Team)

Abstract

During the Vietnam War,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a Korean Agricultural Technical Group (KATG) to support South Vietnam. It was the first case of overseas transfer of farming technologies in Korean agricultural history, but so fa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studies on this.

The dispatch of the KATG to Vietnam took place under the structure of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rmed between Korea, South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Starting with March 18, 1967, it lasted more than eight years until Vietnam became communized in April 1975. During this period, at least 200 domestic experts were dispatched to Vietnam. They supported South Vietnam in the fields of the agricultural economy, water management, and fisheries. Their support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arming and fishing industry in South Vietnam, devastated by the war. They also played a role in supporting Korean troops dispatched to Vietnam. The dispatch of the KATG to Vietnam also achieved approximately USD 2 million.

The dispatch of the KATG to Vietnam during the war period has significance in research for agricultural history and war history as well. Therefore, more studies to supplement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need to be followed.

차례

1. 서론
2. 농업기술단 파견 배경과 전개
3. 농업기술단 파견 현황과 활동
4. 농업기술단 활동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2godis@hanmail.net

1. 서론

1960~70년대 베트남전쟁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군대 이외에도 의료, 기술,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해 전쟁 중인 남베트남을 지원하며 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였다.¹

전쟁 당시 남베트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활동 중에는 농수산 분야의 협력도 있었다. 한국은 1967년 3월, 18명으로 구성된 ‘농업기술단’을 처음 파견하여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약 8년 이상 지속하였다. 당시 농업기술단은 이름과 달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도 포함되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베트남 산업을 재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과 활동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관련 책자에 1967년 주월 한국 농업사절단원이 처음 해외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단편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거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a),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의 첫 해외사업으로 농업기술단 파견을 소개하면서 메콩 델타(Mekong Delta)지역의 기술용역 사업과 1972년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발주한 고꽁(Go Cong) 지구 농업개발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한국농어촌공사 KRC 해외리포트 2020). 그나마 『한국농촌공사 100년사』에는 공사의 해외기술용역 사업을 소개하면서 다른 곳보다 내용과 분량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농업기술단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유사한 정도다(함종만 2008). 농업기술단 관련 기존연구도 수리반 단원으로 파견된 김학영의 논문이 유일하다(김학영 1971). 그러나 영문으로 된 이 논문에서도 수리반의 활동만을 요약해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인 농업기술단의 파견 배경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전쟁 시기 농업기술단의 파견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기술의 첫 해외파견이라는 점에 공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단의 파견 배경이나 현황, 베트남에서의 주요한 활동 및 성과 등을 제대로 규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농업기술단이 한국 농업사의 첫 해외파견이었던 만큼 이들의 활동을 연구하고 기록할 필요는 충분할 것이다.²

1 이 글에서는 당시 국내에서 ‘월남(越南)’으로 불렸던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을 ‘남베트남’으로 표기하였다.

2 한국은 1968~1981년까지 정부주도하에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에 총 25,304ha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이민’을 전

이 점에서 이 연구는 베트남전쟁 당시 군대 이외에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외교사료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사료와 당시의 언론 보도, 대한뉴스, 주월한국군 자료 등을 토대로 농업기술단 파견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농업기술단이 평시도 아닌 전쟁 중이던 남베트남에 어떤 배경에서 파견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농업기술단의 파견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농업기술단의 파견 현황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농업기술단의 파견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이 논의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농업기술단 파견 배경과 전개

2.1. 파견 배경

한국과 남베트남은 1956년 5월 23일 공사관계를 수립하고 1958년 3월 1일 사이공(Sai Gon)에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시작하였다(외교부 2015). 이후 1957년 9월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1958년 11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본격화되었다(이신재 2017b).

그러나 양국관계는 인도차이나와 한반도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00년대 초반 대한제국에서 흉년으로 인해 쌀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안남미’로 불린 베트남산 쌀을 프랑스 상인과 계약해 수입한 바 있다(박성준 2013). 남베트남 정부 이전에 존재했던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물자를 지원해 주었다(양영조 2011).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 발전 속에서 1959년 2월 28일 서울에 ‘한월협회(韓越協會)’가 창립되기도 하였다(최상수 1966).³

개한 바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이에 반해 베트남에 파견된 농업기술단은 이민이 아니라 농업기술지도를 주 임무로 하였으며, 시기적으로도 남미지역 농업이민보다 1년 이상 빨랐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양국 간에 정식 교역이 진행되었다. 1962년 11월 체결된 한국과 남베트남의 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산 농기구 등이 남베트남에 수출되었고(농림부 1962), 1963년에는 베트남 쌀 10,000M/T을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였다(재무부 1963; 농림부 1963). 주한 미 대외원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원조용으로 지원된 소맥분 4,000톤이 남베트남에 대여되기도 하였다(경제기획원 1963).

한국과 남베트남 관계의 발전 속에서 1964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양국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변곡점이 되었다. 특히, 1965년 10월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되면서 양국관계는 군사적 측면 이외에 경제부문에서도 밀접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이 함께하면서 전쟁 기간 3국간에는 이른바 ‘3각 경제협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전개되었던 한국과 남베트남 간 이루어진 다양한 경제협력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였다. 한국, 미국, 남베트남 간의 이른바 ‘3각 경제협력’의 기본 구조는 남베트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한국으로선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남베트남은 이것의 수혜자 입장이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1965년 9월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일권 총리는 말레이시아 방문길에 사이공에 들러 남베트남의 응우옌반티에우(Nguyen Van Thieu) 대통령, 응우옌까오끼(Nguyen Cao Ky) 수상, 그리고 남베트남 주재 미국대사인 로지(Henry Cabot Lodge Jr) 등을 만나 한국, 미국, 그리고 남베트남 3국 간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동아일보 1965. 10. 7.). 이후 1965년 11월 8일 남베트남의 키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제1차 경제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 경제협력 강화, 무역 증진, 기술협조, 남베트남 후방지역사업에 한국 참여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동아일보 1965. 11. 10). 전쟁기간 양국은 1965년 11월 제1차 ‘한월경제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⁴ 또한, 사이공에 ‘주월경제협력단’을 설치해 주월미군 및 남베트남과의 교섭을 담당하였다(대통령비서실 196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인력과 기업들이

3 이 협회는 1958년 12월 5일 최상수의 발기로 195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무로 1가 33번지 고려기계건설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초대회장은 안용백 국회의원이 맡았다. 회칙에는 협회의 목적을 ‘한국과 월남 두 나라 사이의 문화 및 경제를 교류하여 그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4 이후 ‘한월경제각료회의’는 1966년(2차), 1967년(3차), 1970년(4차), 1973년(5차), 1974년(6차) 개최되었고, 1975년 예정되었던 7차 회의는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도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던 남베트남 정부는 각국에 농업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64년 7월 14일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전쟁 수행과 남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혁명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각국에 호소하는 이른바 ‘더 많은 깃발(More Flags)’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Stanley Robert Larsen et al. 1974).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과 남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군대 파병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베트남을 지원했는데, 농업기술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견되었다.

2.2. 전개 과정

1964년 9월 140명 규모의 의무부대와 태권도교관단이 베트남에 처음 파병된 이후 1965년 10월부터는 전투부대가 파병되기 시작하였다. 남베트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활동 또한 전투부대 파병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한국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 문제가 제기되었다. 1965년 말 남베트남 정부가 사이공에 있던 남베트남 주재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Vietnam: USAID/V)를 통해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을 요청해 온 것이었다. 1966년 3월 기준 베트남 현지에는 이미 미국 150명, 대만 72명, 필리핀 42명의 농업기술단이 진출해 남베트남의 농업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었다(농림부 1967a).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66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남베트남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농업, 수리, 수산업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농림부 1967a). 1966년 4월 20일 한국의 토지개발조합연합회는 현지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술자의 남베트남 파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건의사항을 보고하였다(토지개발조합연합회 1966).⁵ 당시 보고내용에는 ① 우선 기술자 2명을 남베트남 주재 미국 대외원조처(USOM, Vietnam: USOM/V)의 지원으로 사이공에 주재시켜 앞으로 파견될 한

5 토지개발조합연합회는 1962년 「토지개발사업법」에 의해 기존의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조직으로 1970년 지하수개발공사와 합병되어 농업진흥공사로 발전된 조직이다. 이후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BasicInfo.do?code:2020.2.10>).

국 수리기술단(1차)을 대표하게 하고, 남베트남 정부 및 USOM/V에 조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할 것, ② 1차 수리기술단은 한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1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그 지역은 메콩강 델타지역 또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제2군단 지역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특정한 1개 지구의 조사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1안은 토지개량조합 연합회가 USOM/V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합회의 책임하에 사업을 완수하는 방안이고, 2안은 기술단 전원을 USOM/V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었다. 여기서, 1안의 경우 행정직을 포함해 100~200명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2안의 경우에는 영어능력의 제한으로 기술자 30명 정도를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추가로,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월 600달러 이상을 확보하고, 근무시간은 주당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파견자에 대한 귀국 후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현지 조사와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1966년 7월 남베트남 농무상 일행의 방한 시 농업기술단 파견문제를 논의하였다. 1966년 7월 26~30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베트남 농무상과의 회의에서 양국 농림장관들은 미 국제개발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농업기술자 18명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외무부 1966a; 1966b). 이후 같은 해 12월 22일 한국의 박동묘 농림부 장관이 남베트남을 방문해 람반찌(Lam Van Tri) 농림상과 농업기술단 파월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농림부 1966; 1967a).

2.3. 파견 협정 내용

농업기술단 파견 협정의 전문(前文)에는 남베트남 농무성,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 농림부 3자 간의 역할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남베트남 농무성은 미국 국제개발처에 대해 작물생산, 수리시설, 수산업 및 일반 농촌개발에 관한 사업의 보강과 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지원할 기술용역을 제공하며, 미국은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미국·남베트남 3자 간의 인적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농림부 1966).⁶

6 이러한 3국의 인적 용역사업은 비단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기술인력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군대의 의료단과 달리 순수 국내 민간의료인력으로 구성된 ‘한국 민간의료단’의 파견이나 각 분야의 기술인력 파견, 그리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 등은 대부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개발공사라는 인력 송출 전담 회사가 만들어졌다.

협정 제1조에는 이 사업의 내용과 요원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 농림부가 남베트남 정부의 지시와 농무성 및 남베트남 주재 USAID 기술자들의 협조하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농업기술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농업기술단의 규모는 총 18명(단장 1명, 행정보좌관 1명, 수산기술자 6명, 수리기술자 5명, 작물생산 관련 연구 및 지도담당 기술자 5명)으로 구성되며, 파견 기간은 12개월로 하였다. 기술단 단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소한 4년제 대학교육을 마치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구비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에 능통한 자로 하였다. 이들에게는 월 550달러의 봉급과 12,000피아스터(Piaster)의 주거 생활비가 제공되었다.⁷ 한국 농림부는 이들이 출발하기 전 2주간에 걸쳐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였다(농림부 1966; 농림부 1967a). 한국 농업기술단에게 부여된 임무도 작물생산, 수리관개, 수산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표 1>은 농업기술단의 분야별 임무를 나타낸다.

표 1. 한국 농업기술단의 임무

분야	임무
작물생산	a. 남베트남 농무성과 협의하여 정해진 작물생산 분야에서 비배(肥培) 개선, 종자 개선, 병충해 방제, 신품종의 적응시험, 혼작 영농, 농기구사용법 등에 관한 지도사업을 수행하며 농민에 대한 권장 훈련사업 지원 b. 농업증산을 위해 연구기관 혹은 실천 경험을 통해 얻은 개량방법과 자료를 농민에게 교도(敎導)
수리관개	a. 소규모 수리사업 조사 및 수리 관개사업 지원 b. 농민에 대한 훈련계획수립과 실지(實地) 훈련 지도
수산업	a. 개량 장비와 개량 어법(漁法)에 의한 원양어업 발전 지원 b. 어획물 유통가공 및 보존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지원 c. 상기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어민에 대한 실제 훈련과 훈련계획 지도

자료: 농림부(1966). “대한민국 농림부와 월남공화국 농무성과의 계약.”

남베트남의 농림부는 한국 농업기술단과 함께 근무할 동일 숫자의 기술자들을 배치하고, 이 계약이 종료될 때 농업기술단의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한국 농업기술단은 수행된 업무와 업무 수행 간 제기된 문제점, 차기 계획사항 등이 포함된 영문의 월간보고서를 작성해 남베트남 농무성과 USAID/V에 각각 6부씩 제출하도록 하였다(농림부 1966).

7 피아스터는 당시 남베트남의 화폐로 VNĐ로 표기하고, 1970년 1월 기준 1달러=118피아스터였다(합동참모본부 1970).

3. 농업기술단 파견 현황과 활동

3.1. 파견 현황

한국과 남베트남 간 협정에 따라 제1차 파견단은 1967년 3월 28일 서울 농림부 회의실에서 박동묘 농림부 장관과 남베트남 농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진 뒤, 3월 29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동아일보 1967. 3. 28.; 매일경제 1967. 3. 28.). 이들의 파견은 한국 농업사에서 해외에 파견되는 첫 번째 농업기술단이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농업기술단의 단장은 예비역 대령 이광수가 맡았다. 단원들은 농업생산, 수리, 수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일부 농림부 관계자로 편성되었다. 당시 18명의 소속은 농림부 3명⁸, 농촌진흥청 2명, 토지개발조합연합회 2명, UNDP 2명, USOM/K 1명, 원자력원 농학연구소 2명, 중앙종묘주식회사 1명, 태평방직주식회사 1명, 대선조선주식회사 1명,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 1명, 호남비료주식회사 1명, 국립수산물검사소 1명 등이었다. <표 2>는 당시 농업기술단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나타낸다.

표 2. 1차 농업기술단 편성 현황

분야	직종	성명	파견 당시 소속
단장	-	이광수	-
행정보좌관	-	김항구	USOM/K
농업생산	연구(육종)	김광식	원자력원 방사성농학연구소
	연구(육종)	문광술	중앙종묘주식회사(서울)
	지도	전갑수	태평방직주식회사
	지도	김이태	농촌진흥청 지도국 기획과
	지도	채삼병	강원도 농촌진흥원 지도과
수리	농업토목	문종규	-
	농업토목	명관심	토련 토양간척부 간척과
	농업토목	노형원	토련 토양간척부 간척과

8 <표 2>에서 소속이 표기되지 않은 이광수, 문종규, 김연찬을 농림부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농림부는 외무부에 여권 발급 시 '단원 중 단장 및 일부 고위단원은 농림부 직원이 파월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외무부 1967).

(계속)

분야	직종	성명	파견 당시 소속
수리	농업토목	양기영	UNDP 간척조사사업기구
	농업토목	최상균	UNDP 간척조사사업기구
수산	어구(漁具)어법(漁法)	김연찬	-
	어선 건조	차재빈	대선조선주식회사(부산)
	어선기관	김춘식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
	냉동냉장	김종희	호남비료주식회사
	수산시장	이현우	국립수산물검사소 제1과
	수산식품가공	김성기	원자력원 방사성농학연구소
	계	18명	

자료: 농림부(1967b); 매일경제(1967. 3. 28.)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함.

파견 협정에 따라 이들에게는 각 직책 및 분야별로 월급과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 당시 단장에게는 월 800달러의 급여와 18,000피아스터(약 150달러)의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 행정보좌관에게는 450달러의 급여와 12,000피아스터(약 100달러)의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농업, 수리, 수산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월 550달러의 급여와 12,000피아스터(약 100달러)의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농림부 1967a). 이 밖에도 1인당 연평균 700달러의 보험료와 현지 사무비가 책정되었으며, 운영기간 동안 타자원이 제공되고, 기타 용역비도 확보되어 있었다(농림부 1967a).

농업기술단의 파견 기간은 협정에 따라 1차 파견단의 경우 1967년 3월부터 12개월이었다. 그러나 협정에 의해 파견 기간과 규모는 양국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파견 기간과 인원은 2차 연도부터 곧바로 증가하였다.

한국과 남베트남 양국은 1967년 10월 양국 농무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단원의 규모를 1차 연도에 파견된 18명에서 17명을 추가해 35명으로 증원하였다. 증원된 17명은 부단장 1명(신설), 농업생산 6명, 수리 7명, 수산 3명 등이었다. 1차 파견 당시에는 없었던 부단장과 농업경제전문가, 수산분야의 저인망(Trawling) 및 건착망(purse-seine) 기술자 2명, 수산통계전문가 1명이 새로 추가되었다(농림부 1968b). 증원에 따라 직제도 변화해 작물생산, 수리, 수산 등 분야별 부장제도를 신설하였다(매일경제 1967. 10. 23.). 개정된 합의는 1968년 4월 10일 이택근 남베트남 주재 공사와 토우탁찐(Tow That Trinh) 남베트남 농무상 간에 체결되었다(외무부 1968).

이후에도 농업기술단의 규모와 활동은 변화를 겪었다. 1970년 4월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4차 한-월 경제각료회의에서 양국은 베트남 근해의 자원조사와 시험조업 등을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는 데

합의하였다(주월한국군사령부 1970; 경향신문 1970. 4. 22). 또 1971년 3월에는 농업기술단 규모를 30명에서 41명으로 11명 늘리기로 합의하였다.⁹

농업기술단의 파견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변화를 맞았다. 파리 평화협정으로 전쟁은 형식상 종전되었고, 한국군을 포함해 베트남에 주둔하던 모든 외국군대는 철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기술단 파견문제도 새롭게 검토되었다.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1972년 11월 24일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는 향후 3년(1973, 1974, 1975)간 30명 규모의 농업사절단을 계속 파견하도록 건의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간 파견비용 370,000달러에 대해서는 한국(200,000달러, 54%), 미국 AID(100,000달러, 27%), 남베트남(70,000달러, 19%)이 각각 부담하는 안이 보고되었다(대통령 비서실 1972). 그러나 이 같은 한국의 계획은 미국과 남베트남 측에서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곡 생산, 관개 및 농기계전문가 16명만을 계속 파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대통령 비서실 1973).¹⁰ 이후 이것은 일부 수정을 통해 20명으로 증원되었다(외무부 1974).

그러나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되면서 농업기술단은 철수해야만 했다. 1975년 4월 4일 기준 한국 외무부가 파악한 남베트남 주재 한국인 현황에는 농업사절단 17명과 동반가족 14명 등 총 31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외무부 1975a).¹¹ <표 3>은 당시 농업기술단 잔류자 현황을 나타낸다.

9 농업기술단의 인원을 30명에서 11명 증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근무인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1973년 남베트남주재 한국대사의 보고에는 1971년 40명이 근무하였다고 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보고에는 35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당시 언론에서는 1971년 3월 당시 30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 이후 1973년 3월 24일 유양수 대사와 반 램(Van Lam) 남베트남 외무상 간에 사이공에서 서명된 ‘월남정부와 농업기술사절단 월남 파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의 ‘농업기술단’이란 명칭 대신 ‘농업사절단’(Korean Agriculture Mission to Vietnam)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11 농업기술단 이외에 당시 남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이외의 한국인은 대사관 및 정부사절단 등의 직원 77명, 가족 102명, 대사관 고용원 12명 등 총 191명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농림부 관계 분야는 농업진흥공사 소속의 고흥지구용역단 4명(단장 함준호)과 수자원사절단 4명(단장 최상기)이 있었다.

표 3. 베트남 공산화 당시 농업사절단 현황(1975. 4. 8. 기준)

분야별	이름	근무지	소속	동반가족 수
단 장	서○인	사이공	민간	2
부단장	양○영	사이공	민간	
수 리	백○복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서○용	나짱	농업진흥공사	
	김○주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박○근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2
	박○용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백○춘	나짱	농업진흥공사	
	장○영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3
	한○석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신○각	사이공	민간	
농 업	장○제	사이공	민간	
	홍○진	미토	민간	1
농 기 구	최○한	판 랑	민간	2
	종○범	사이공	민간	
임 업	정○섭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수 산	김○용	사이공	수산청	4
합 계	17명			14명

주: 단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만 표기함.

자료: 외무부(1975b). “재월한국인 현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기술단의 파견 규모는 1967년 18명으로 시작해 최대 40명이 유지되었고,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철수할 때도 17명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파견된 인원은 최소 225명에서 최대 244명으로 추산된다.¹² 물론 이 숫자에는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파견된 인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 파견된 인원만을 산출한다면 200명 이내였을 것이다. <표 4>는 당시 농업기술단 파견 규모의 변동현황을 나타낸다.

표 4. 농업기술단 파견 규모 변동현황

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계
인원(명)	18	35	35	35	30~40	23~24	16~20	16~20	17	225~244

자료: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12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베트남’에 대한 설명 중에는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농업기술단으로 총 215명이 파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2. 주요 활동 현황

베트남에 파견된 농업기술단은 크게 작물생산, 수리관개,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남베트남 양국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임무였다. 그러나 남베트남에서 이들의 활동사항은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일부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먼저, 작물생산 분야 활동은 남베트남 농민 등을 대상으로 농업부문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지도하고 교육하였다. 여기에는 작물에 대한 비료 개선, 종자 개량, 병충해 방제, 신품종의 적응시험, 혼작 영농, 농기구 사용법 등이 해당되었다.

종자 개선과 신품종의 적응시험에 대해서는 국내 벼의 베트남 시험재배도 진행되었다. 1960~70년대 국내에서는 국제미작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15종의 신품종 법씨를 개발 보급하였다.¹³ 베트남에서의 시험재배는 바로 국내에서 개발된 법씨를 베트남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한국군 수도사단이 주둔했던 퀴년(Quy Nhon)에 ‘한국벼 시험재배농장’을 조성해 남베트남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배하였다(KTV e-영상자료원 1967). 이것은 수도사단 소속 재구대대(파병 전 순직한 강재구 소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대대)가 조성한 마을인 ‘재구촌’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한국군은 농업기술단과 함께 벼의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다. 베트남의 기후와 토질의 차이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것은 한국 법씨의 개량과 식량 증산에 있어서 매우 이색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리 관개부문에서는 수리사업 조사와 수리 관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농업기술단의 수리반은 1967년 3월 파견 이후부터 지역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체류하며 사업을 전개하였다. 1970년까지는 사이공과 냐짱(Nha Trang) 지역에서 47개 프로젝트를 진행해 40,101ha의 면적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활동지역을 확대해 끼엔호아(Kien Hoa), 판랑(Phan Rang), 고꽁(Go Cong), 뚜이호아(Tuy Hoa), 광응아이(Quang Ngai), 후에(Hue) 등에서 활동하였다. 농업기술단 수리반은 농지개량 사업의 설계 및 공사를 감독하고, 전국의 경작가능지역 및 수리

13 한국 정부는 1964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식량증산에 대한 유시 이후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와 협력해 법씨 개량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77년에는 쌀생산 4,000만 석을 돌파하였고, 이를 기념해 1978년 5월 수원 농촌진흥청에 ‘녹색혁명성취’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당시 벼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김인환(1978)의 저서를 참고할 것.

시설 적지 조사, 수리구조물 설계 기준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1952년부터 1966년까지 15년 동안의 기상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수문 기상자료도 작성하였다(김학영 1971). 또한, 농민들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해 지도하였고, 농업개발시설을 건립해 남베트남 측에 양도해 주는 활동도 전개했는데, 1969년 귀년에서 양도식 행사가 개최되었다(국가기록원 1969).

농업에서 관개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확충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논과 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농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농업기술단은 수리 관개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남베트남의 전화복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셋째, 수산업 부문에서는 남베트남의 어업분야 발전을 위해 장비와 어법(漁法) 개선, 어획물 유통과 보존방식 개선, 그리고 어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산분야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토대로 1973년 12월 수산청 공무원을 파견해 베트남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농업진흥공사 1973; 수산청 1974a). 이 조사는 전쟁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베트남 수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한국 어업의 남베트남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한, 1974년 예정되었던 한국 어업조사선 파견에 관한 사전 협의의 목적도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보고에는 남베트남 수산업에 대해 어종은 많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새우자원 개발이 가장 유망하고, 한국 수산진흥원 시험조사선의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개인기업 합작 투자 가능성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수산청 1973).

이들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활동은 국가기록원과 대한뉴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자료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들의 활동 중 대표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농업기술단 활동 사진



귀년지역 농민들에 대한 농업기술 지도(1969)

농업개발시설 준공 및 이양식(1969, 귀년)

신상철 한국대사의 농업기술단 시찰(1969)

한국 벼 시험재배 농장에서 한국군과 주민(1967, 귀년)

자료: 국가기록원(1969); KTV e-영상자료원(1967).

한편, 농업기술단의 근무지역도 현재 남겨진 자료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7년 3월 1차 농업기술단이 파견될 무렵 국내 한 언론은 이들이 1년 동안 ‘주월한국군 2군관구(2군단) 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동아일보 1967.3.28). 이를 뒤인 1967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제3차 한월경제각료회의 결과 1차로 파견되는 한국의 농업기술단은 귀년지역에서 시범농장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동아일보 1967. 4. 1.). 당시 남베트남 군대는 북위 17도부터 남쪽으로 4등분하여 총 4개 군단을 유지하고 있었고, 제2군단은 2번째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국군 전투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귀년은 빈딘(Bin Dinh)성의 성청(省廳)이 위치한 곳이자 당시 주월한국군 중 수도사단(맹호부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농업기술단의 활동지역은 끼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파견 초기 주월한국군의 협조를 받으며 제2군단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농업기술단 수리반의 경우에는 북쪽의 후에로부터 남쪽으로는 고푹지역까지 다양하였다(김학영 1971).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직전 외무부에서 파악한 현지 체류 농업기술단 17명의 근무지역도 사이공, 냐짱, 판랑, 미토(My Tho) 등 4개 지역이었다(외무부 1975b).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지역은 남베트남 전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농업기술단 활동 평가

4.1. 전쟁 중인 남베트남의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농촌을 복구하고 농수산업 발전을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7년 3월부터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파견되었던 농업기술단의 활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며 전쟁 중인 남베트남의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농업기술단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국내와 남베트남 모두에서 긍정적이었다. 농업기술단에 대한 국내 평가가 담겨 있는 1968년 5월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 1967년 파견된 18명의 농업기술단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1년간 활동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베트남의 농업생산, 수리 및 수산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업무를 완수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주월한국군의 대민지원사업도 지원하였다고 평가하였다(농림부 1968b). 농업기술단의 농업생산 지도 단원인 채삼병의 경우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6월 22일 남베트남 대통령궁에서 티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훈을 받기도 하였다(국가기록원 1969).

남베트남 측도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1974년 12월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6차 한월경제협력 회의에서 남베트남 재무상은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에 대해 ‘남베트남 농업개발에 미친 기여는 극히 찬양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매일경제 1974. 12. 17.).

1972년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서도 농업기술단에 대한 평가가 확인된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메콩강 델타지역 개발을 비롯한 농·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남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술단의 원조를 계속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1972년 10월 한국 농림부 차관 초청으로 방한한 남베트남 농무성 차관도 한국 기술진 파견 교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3년간 농업사절단 30명의 계속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대통령비서실 1972).

농업기술단 활동이 양국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2차 파견 때부터 파견 인원의 증원과 사업분야 확대가 곧바로 이루어졌다. 1차 파견 당시 18명이었던 인원은 최고 4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분야도 농업생산, 수리, 수산분야를 비롯해 농업경제, 각종 통계분야 등으로 확대되었다.

농업기술단의 활동이 남베트남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당시 이들의 기술 수준이 베트남 측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기술단 파견 당시 국내 농업기술 수준은 과연 어떠한가? 단적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국 농업은 1945년 광복과 1950년부터 약 3년에 걸친 전쟁을 겪으며 피폐한 상황이었다.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도약하는 단계에서 베트남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는 기회를 맞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업기술단 파견 당시 국내에서도 농업발전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1964년부터 경지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국립영화제작소 1964),¹⁴ 1966년에는 각 지방의 군 단위까지 ‘의용농업기술단’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어져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농업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¹⁵ 농업기술단이 베트남에 처음 파견되는 1967년에는 제8회 전국 농업기술자 대회도 개최되었다. 1961년에는 수리조합시설 확장공사를 통해 33만 섬의 쌀 증산을 기대한다는 보도도 나왔다(KTV e-영상자료원 1961). 1950년 후반 이후 작물분야에서도 품종개량이 활발

14 20분짜리 분량의 이 영화는 한 농촌지도원이 경지정리에 부정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지정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경지정리, 환지, 측량, 수로, 도로 등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이 사업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 한 예로 경북 봉화군의 경우 1966년 9월 7일 총 11개조로 구성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군 및 읍면단위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각종 농업기계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증산을 도모하고 각종 재해에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제시하였다. 또 제2조(설치)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에 의용농업기술단을 두고 읍면에 동구읍면지단을 둔다고 하였다. 의용농업기술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부장 5인, 약간의 고문을 두고 5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봉화군 1966).

하게 이루어졌고, 1960년대 말에는 ‘통일벼’ 품종도 만들어졌다(이은웅 1987).

남베트남에서 농업기술단 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후 한국과 남베트남 간에는 농업 분야에서 확대된 협력사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고푹지구 수리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사이공 남부의 평원지역인 고푹지역 수리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미 1970년 2월 3일 한국 농업 및 토목기술자 20명을 6개월간 파견해 고푹지역 개발을 위한 농업, 토목, 수문, 토질, 토양, 전기, 기계, 건축 부문의 기본조사와 측량 설계 등을 실시하였다(매일경제 1970. 2. 4.).

1974년 6월 26일에는 한국 농업진흥공사와 남베트남 정부 수리총국 간에 고푹지구 농업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6,300ha 개발면적에 대해 설계도 작성, 공사감독 및 지원, 농업종합개발 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비는 507,000달러였다. 농업진흥공사에 따르면 이 용역에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등록된 1,850개의 용역회사가 경합을 벌였는데, 한국 농업진흥공사가 1위로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12개 전문분야에 14명의 기술진이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맡아 보게 되었다(매일경제 1974. 7. 11.). 이 사업은 1974년 8월부터 시작해 1977년 12월까지 약 3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 인해 1975년 4월 11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남베트남에서 철수해야만 하였다(농업진흥공사 1982).¹⁶

또한, 1974년 12월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6차 한월경제각료회의에서는 남베트남 동나이(Dong Nai) 유역 종합개발조사 및 다이디엔(Dai Dien) 지구 수리개발 타당성 조사도 논의되었다(주월한국대사관 1975). 그러나 이 사업은 베트남 공산화로 인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사업은 확대되어 나갔다. 양국은 197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월경제각료회의에서 베트남 근해 수산자원 조사단 파견에 합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민간회사의 합작을 통한 수산자원 공동개발도 구상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73년 12월 실무조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 1974년에는 한국의 수산조사선을 베트남 근해에 파견하였다.

1974년 5월, 300톤급 수산조사선 ‘태백산호’에 29명(조사단 7명, 승무원 19명, 베트남 수산관계관 3명-현지 승선)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보내 사이공, 냐짱, 붕따우(Vung Tau) 등 3개 지역을 조사

16 당초 계약과 달리 한국용역단이 1975년 4월 조기 철수함에 따라 선급금 잔액 72,373.12달러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상호 환급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였다(수산청 1974b, 1974c). 당시 조사는 한국 수산조사선의 남베트남 근해에 대한 첫 번째 조사였다. 이 조사를 통해 양국의 수산분야 협력은 자원조사와 시험조업 등으로 확대되어 갔지만,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됨에 따라 더 이상 진전되지는 못했다.

4.2.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과 외화 획득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은 이후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전개되었다. 한국은 1967년 베트남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을 시작한 이후 1970년 ‘한-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용역단을 파견해 메콩 델타지역 55,000ha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뒤에는 1972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주한 ‘지구 1단계 농업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해외 기술용역사업의 첫 장을 열었다(한국농어촌공사 KRC 해외리포트 2020). 1972년 이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23개국 80개 지구 기술용역을 수주해 51,181천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함종만 2008). 이 밖에 유사한 사례로 농업기술단의 남베트남 파견에 이어 1968년 2월부터 2개월간 14명의 조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산림기술조사를 하기도 하였다(농림부 1968a).

1973년 1월 파리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에 주둔하던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한 이후에는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유양수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는 1973년 4월 16일 수운회관에서 열린 유정회(維政會) 의원 세미나에서 베트남 전후 문제를 브리핑하면서 “한국농업사절단이 계속 남아 베트남의 농업 부흥에 기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973. 4. 16.). 마지막 남베트남 주재 대사였던 김영관은 1974년 3월 부임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영관은 한국의 진출분야 중 하나로 농업기술단 파견 등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개발 협력, 수산 개발을 위한 연안 시험 조업, 산림자원 개발 등을 언급하였다(동아일보 1974. 3. 22.). 그러나 추가적인 남베트남과의 협력 사업은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인해 더 이상 전개되지는 못했다.

한편, 농업기술단의 파견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농업 기술단의 활동은 베트남전쟁 당시 국내에서 파견된 민간의료단 등의 인적 용역과 마찬가지로 외화

획득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당시 파견된 농업기술단 단원들은 직책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었지만, 최소 550달러의 봉급과 약 100달러의 주거 수당, 그리고 1인당 연평균 700달러의 보험료와 현지 사무비가 제공되었다(농림부 1967a). 이것은 당시 국내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5,89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준다.¹⁷

그렇다면 농업기술단의 파견을 통해 얻게 된 외화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해 볼 수는 있다. 1972년 11월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의 대통령 보고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71년까지 5년 동안 농업기술단의 국내 송금액은 129만 달러였다(대통령비서실 1972).¹⁸ 이것은 연간 26만 달러 정도 규모이고, 1972년분도 이 정도 규모로 가정해 보면 1967년부터 1972년도까지 농업기술단의 국내 송금 총액은 약 15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1973년부터는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 정부가 파견비용(연간 20만 달러)을 부담한 만큼 이후 기간을 외화 획득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대통령비서실 1972). 그러나 이후 한국은 농업기술단 이외에 고공지구 용역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사업비용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 1967년부터 1975년까지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최소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전쟁기간 농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북한도 비슷했다는 점이다. 북한도 베트남전쟁에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요원 등 군대를 파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트랙터 같은 농기계 판매와 베트남에 대한 전기판매권과 유전개발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확인되고 있다(이신재 2017a). 당시 북한에서 생산된 트랙터의 경우 북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쿠바 등에 수출되었는데, 북한의 트랙터는 진흙과 눈에서의 작업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어 북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월프레드 버켓 1988). 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도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 노선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7 1969년 기준 국내 근로자 가구(평균 5.42명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24,650원이었고,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5,890원이었다(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statisticList>: 2020. 2. 10.).

18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남베트남에서 국내로의 송금액은 총 9억 9190만 달러였고, 이 중 농업기술단과 민간의료단의 봉급, 보험료 및 군인들의 송금액은 2억 9백만 달러로 파악된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72). 여기에는 군인들의 해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경험은 전쟁과 경제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3. 한국 정부와 주월한국군의 농업기술단에 대한 지원과 협력

농업기술단의 남베트남 파견과 활동에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 같은 지원에는 관련 부처라 할 수 있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총무처, 국세청 등 다양하였다. 이것은 농업기술단이 첫 해외파견이었고 그것도 전쟁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은 농업기술단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대만, 필리핀 등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인력들과 비교해 농업기술단 파견 인원들의 수준도 높고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력을 파견해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당시 주무 부처였던 농림부는 정부 각 부처에 농업기술단 파견에 따르는 지원을 요청하였다(농림부 1967a; 1967b). 이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체류 중 현지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무부는 농업기술단에 대한 여권 발급을 지원하였다. 단장에 대해서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였고, 단원들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하였다. 총무처는 단원 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였고, 휴직기간에 따르는 근무평정 등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도 하였다. 토지개량조합연합회도 파견 단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부에는 남베트남 체류 중 수령하는 보수에 대해 원천과세징수를 면제 조치하였다.

특히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현지 생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지원이 중요하였다. 농업기술단이 전쟁 중인 남베트남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주월한국군과의 관계는 밀접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주월한국군을 통해 주둔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업기술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비상상황 등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국군 의료구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농업기술단 단장을 예비역 대령인 이광수가 맡았던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1966년 7월부터 파견된 한국 민간의료단의 경우에도 육군 의무감을 역임한 예비역 준장 백창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바 있었다(이신재 2020).

농업기술단은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위주로 배치되어 한국군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주월한국군이 농업기술단을 지원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업기술단과 주월한국군은 상호 협조 관계에 있었다. 전쟁 당시 주월한국군이 전개했던 다양한 차원의 대민사업 중에서 농업지원 활동은 중요한 부문 중 하나였다. 한국군은 추수철이 되면 베트남 농민들을 벚콩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 장병들이 직접 벼 내기, 추수지원 활동 등을 지원하였다. 여기에 농업기술단이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해 남베트남 농촌에 한국의 농업기술이 전수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대민사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업기술단의 파견과 현지 활동에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남베트남 파견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1964년 9월 베트남에 처음 군대를 파병하고 1965년 10월 전투부대로 확대하면서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활동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남베트남, 미국의 3각 경제협력 구조 속에서 전개된 다양한 지원 활동 중에 농업기술단의 파견도 이루어졌다.

농업기술단은 그 이름과 달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1967년 3월부터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약 200여 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농업기술단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베트남의 농업, 수리, 수산업 분야의 복구와 발전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월한국군의 대민지원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약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도 획득하였다. 남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농업기술단은 한국 농업사에서 해외에 파견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농업기술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 사례는 비단 역사적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에도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간 농업 협력사업의 선행사례로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교류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5년 한국-베트남 간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더욱 활발해져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 중에서 베트남은 최대 지원국이기도 하다(곽성일 외 2017).

이러한 양국 간의 교류는 농업분야에서도 활발하다. 양국은 농업기술 교환, 농업기술 연수생 및 연구원의 인적교류, 한국의 농업발전 사례 공유, 농지관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 2020). 이 중에서 일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통해 이미 경험하였던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베트남전쟁 당시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당시의 조사 결과 등을 참조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베트남의 농업협력 및 교류활동의 수준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트남전쟁 당시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은 군대의 해외파병과 농업협력의 모델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한국은 4개 국가에 951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현황 2020). 이들은 유엔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국가의 재건과 자립을 위해 농업분야의 지원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한빛부대’는 식량난 해결을 통한 자립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한빛농장’을 개설하고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산 호미 등의 농기구와 종자 등이 사용되고, 남수단 농업인력의 국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국방일보 2019. 7. 22., 2020. 10. 15.). 한빛부대 이전에도 1993~1994년 소말리아에 파병되었던 상록수부대는 현지의 급수확보를 위한 심정개발, 농경지 경작을 위한 관개수로 작업, 기술학교 개설 등 소말리아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현황 2020). 이러한 활동은 한국군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전쟁 당시 농업기술단의 활동이 주월한국군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은 국제적으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과 한국 농업기술을 접목해 파견지역의 재건 지원 및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전파라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 활동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입체적인 재조명에는 일부 제한이 있었다. 특히,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이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1차 사료

- 경제기획원. 1963. “의안번호 제30호, 월남정부에 대한 소맥분 대여.”(12. 28.)
- 국가기록원. 1969. “농업기술단 활동 관련사진.”(관리번호 CET0033154, 0033167, 0058529)
- 농림부. 1963. “외미 긴급도입에 따르는 외환 긴급사용 조치 의뢰.”(7. 5.)
- 농림부. 1962. “의안번호 제1963호, 대한민국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농림부. 1966. “대한민국 농림부와 월남공화국 농무성과의 계약.”(12. 22.)
- 농림부. 1967a. “의안번호 제177호, 대월남농업기술단 파견 지원.”(2. 23.)
- 농림부. 1967b. “과월농업기술단에 대한 정부 지원.”(3. 11.)
- 농림부. 1968a. “의안번호 제135호, 카리만탄지구 산림기술조사보고.”
- 농림부. 1968b. “의안번호 제138호, 대월남농업기술단 파견 경제장관회의 안건.”
- 농업진흥공사. 1973. “주월한국농업사절단 근무 수산전문가 추천 의뢰.”(12. 27.)
- 농업진흥공사. 1982. “월남 고콩지구 관계철.”(1982)
- 대통령비서실. 1965. “월남후방 지원확대 방안검토 회의.”(4. 8.)
- 대통령비서실. 1972. “보고번호 제373호, 주월 한국 농업사절단 기간 연장 문제 검토.”(11. 24.)
- 대통령비서실. 1973. “보고번호 제3호, 주월한국농업사절단 파월문제 보고.”(1. 9.)
- 봉화군. 1966. “봉화군 의용농업기술단 설치조례 제정.”(9. 7.)
- 수산청. 1973. “월남근해 어업개발 사전 조사 보고서.”(12. 27.)
- 수산청. 1974a. “월남근해 수산자원 조사계획.”(1. 30.)
- 수산청. 1974b. “주월한국 농업사절단 근무 수산전문가 추천.”(1. 15.)
- 수산청. 1974c. “월남근해 수산자원 조사계획서.”
- 외무부. 1966a. “월남 농업기술단 파견.”(등록번호 2412)
- 외무부. 1966b. “한(농림부)-월남(농무성)간 농업기술단 파견 협약.”(등록번호 1972)
- 외무부. 1967. “과월농업기술단원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2. 25.)
- 외무부. 1968. “한(농림부)-월남(농무성)간 농업기술단 파견 연장 협약.”(등록번호 2762)
- 외무부. 1974. “한-월남 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수정.”(등록번호 7390)
- 외무부. 1975a. “월남비상철수계획.”(4. 4.)
- 외무부. 1975b. “재월한국인 현황.”(4. 8.)
- 재무부. 1963. “의안번호 제876호, 월남미 구매를 위한 외환조치.”
- 주월한국군사령부. 1970. “한월경제회담 결과보고서.”(5. 7.)
- 주월한국대사관. 1975. “제6차 한-월 경제각료회담 합의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체결.”(3. 4.)
- 토지개발조합연합회. 1966. “대월남 농업기술지원에 따른 기술자 파월.”(4. 20.)
- 합동참모본부. 1970. “월남안내.”

2. 단행본, 논문

- 곽성일, 김계국. 2017.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인환. 1978. 『한국의 녹색혁명: 벼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 농촌진흥청.

김학영. 1971. “주월 한국농업기술단의 수리 활용.”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 pp. 2290-2295. 한국농공학회.
 대한무역진흥공사. 1972. 『각국의 월남전후복구사업개요』. 대한무역진흥공사.
 박성준. 2013. “대한제국기 진흥정책과 내장원의 곡물 공급.” 『역사학보』 제218호, pp. 271-307. 역사학회.
 양영조. 2011. “6·25전쟁 물자지원국 검토 및 기준 재정립-유엔을 통한 물자지원을 중심으로.” 『6·25전쟁 61주년 학
 술회의: 6·25전쟁 물자지원국 현황연구』, pp. 41-50. 국방부.
 외교부. 2015. 『2015 세계각국편람』. 외교부.
 윌프레드 버렛 저, 김남원 역. 1988. 『북한현대사』. 신학문사.
 이신재. 2017a.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 2017b.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태권도』. 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 2020. 『베트남전쟁과 한국정부의 지원 활동』. 군사편찬연구소.
 이은용. 1987. “근대 한국의 농업과학 및 기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최상수. 1966. 『한국과 월남의 관계』. 한일협회.
 함중만. 2008. 『한국농촌공사 100년사: 1908-2008』.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a. 『한국농정50년사 별책: 농정반세기 증언』.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b. 『한국농정50년사 I, II』.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
 Stanley Robert Larsen, James Lawton Collins, Jr. 1974.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Dept. of the Army.

3. 기타(신문, 인터넷, 영상자료 등)

『경향신문』. “월 잔류 한국지원국 의료단·12용역단 등.”(1973. 4. 16., 1면).
 『경향신문』. “전시체제 벗어나 복구협력 모색.”(1970. 4. 22., 4면).
 『국방일보』. “한빛부대, 남수단 주민 7명 한국초청 직업연수.”(2019. 7. 22., 3면).
 『국방일보』. “한빛부대, 아프리카 남수단에 농기구 호미 전달.”(2020. 10. 15., 2면).
 『동아일보』. “18명으로 구성된 파월농기단 결단.”(1967. 3. 28., 2면).
 『동아일보』. “무역증진책 등 논의.”(1965. 11. 10., 1면).
 『동아일보』. “신뢰와 실리-정총리 동남아 순방의 성과.”(1965. 10. 7., 1면).
 『동아일보』. “인터뷰-새로 임명된 김영관 주월대사.”(1974. 3. 22., 4면).
 『동아일보』. “한-월경제회담에 비친 경제협력의 허실.”(1967. 4. 1., 2면).
 『매일경제』. “경제통상 증대 협의.”(1974. 12. 17., 1면).
 『매일경제』. “기술단 증파 합의.”(1967. 10. 23., 1면).
 『매일경제』. “기술자 20명 파견.”(1970. 2. 4., 3면).
 『매일경제』. “기술자 파월 결단식.”(1967. 3. 28., 3면).
 『매일경제』. “농진공, 월남에 기술용역.”(1974. 7. 11., 7면).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BasicInfo.do?code>>. 검색일:
 2020. 2. 10.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statisticList>>. 검색일: 2020. 2. 10.
 국립영화제작소. 1964. “농경지 정리.”(20분 41초, K-TV e-영상역사관 소장)
 한국농어촌공사. “KRC 해외리포트” <<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0/03/section1-4.html>>. 검색일:

2020. 10.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 <<https://www.krei.re.kr/kapex/partner.do?key=453&bbsNo=234>>. 검색
일: 2020. 12. 18.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현황.” <<https://www.jcs.mil.kr/mbs/home/mbs/jcs2>>. 검색일: 2020. 12. 18.

KTV e-영상자료원. 1961. “대한뉴스 제338호.”

KTV e-영상자료원. 1967. “대한뉴스 제613호.”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04일
원고 심사일: 2020년 10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2월 16일